

아오시마섬의 아열대 식물

아오시마섬에는 독특한 식생이 자라고 있습니다. 그중에는 북쪽에서 자생하는 희귀한 열대 및 아열대 식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같은 식물들이 아오시마섬에서 자생하는 이유는 동중국해에서 유입되는 구로시오 난류가 아오시마섬을 지나 일본 태평양 연안을 따라 세토 내해 방면의 북동쪽으로 흘러들어 기후가 온난하여 연간 강수량이 많기 때문입니다. 아오시마섬에서 자생하는 226 종의 식물 중 27 종은 열대 또는 아열대 식물로서 일본 천연기념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비로야자(*Livistona chinensis*)는 아오시마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로야자는 수 세기에 걸쳐 아오시마섬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약 5,000 그루가 자생하는 비로야자 중에는 수령이 최대 350 년이나 되는 것도 있습니다. 이외에도 아오시마섬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식물로는 독을 품은 알로카시아(*Alocasia odora*), 석산의 일종인 문주란(*Crinum asiaticum*), 다정큼나무(*Rhaphiolepis umbellata*) 등이 있습니다.